

'출가=자유' 알리는 야단법석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5월 26일 '출가 콘서트' 개최

'어렵다. 고되다. 폐쇄적이다. (사안이 있어)속세를 떠났다.' 일반 대중들이 가지는 출가 수행에 대한 이미지가. 이 같은 출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현대적 출가 수행자상을 알리기 위한 토크콘서트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5월 26일 오후 4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는 출가콘서트를 개최한다.

'청춘! 자유를 향한 날개짓'을 주제로 열리는 출가콘서트는 올해를 '출가 진흥의 해로' 선포한 조계종 교육원의 역점 사업으로 출가를 주제로 대형 행사를 마련한 것은 종단 사상 처음이다.

무엇보다 콘서트의 주된 목적은 고되고 폐쇄적이라고 여겨지는 출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개선하고, 대안적 삶으로서 출가를 알리는 데 있다.

그만큼 출가콘서트 출연진들도 대중과 호흡을 맞추고 소통할 수 있는 출·재가자로 구성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민 멘토 법륜 스님이다. 스님은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출가가 진정한 자유

로 향하는 길임을 설교할 예정이다.

또한 BBS 불교방송 '아침풍경' 진행자 원영 스님, 나란다 교리 경시대회에서 수상하며 출가 원력을 세운 고우 스님이 참여한다. 재가자로는 사회적기업인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가 참가해 20~30대가 바라보는 불교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예정이다.

출가 주제 콘서트 사상 처음

멘토 법륜 스님 패널로 참여

상담·출가 이미지 개선 중점

학인 염불시연·문화공연 '눈길'

이와 함께 출가콘서트에서는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학인염불시연대회·외국어스피치대회의 수상자들이 출연해 공연을 진행한다.

2014년 학인염불시연대회 대상 수상자인 보견 스님은 홀로아리랑에 맞춰 시



조계종 교육원의 '출가콘서트' 포스터

연했던 '광명진인'을 선보이며, 지난해 학인과국어스피치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고우 스님은 'H3 비타민'을 주제로 108배·명상의 중요성을 영어로 설교한다.

또한 외국어스피치대회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들, 달마 대사와 법맥들이 서로 랩을 통해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의 공연을 펼쳤던 동국대 서울

캠퍼스 법상 스님 등 'SHOW ME THE BUDDHA' 팀도 출가콘서트에 출연해 흥겨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출가콘서트는 출가사이트(monk.buddhism.or.kr)를 통해 이뤄지며 선착순 무료다. 사전 예약한 100명의 방청객에게는 로얄(R)석을 제공한다. 또 평소 출가에 대해 가졌던 궁금함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번 출가콘서트에 대해 교육부장인 각 스님은 "올해를 출가 진흥의 해로 삼은 만큼 출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에 더욱 힘을 쏟겠다. 출가콘서트는 출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중요한 포석"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젊은이들의 고민을 많이 듣고 이에 대해 상담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출가는 만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며, 적극적인 삶의 자세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오는 10월 두 번째 출가콘서트를 부산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02)2011-1810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년나무가 그늘 드리우듯 덕화 사바에"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포서식이 4월 20일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포서식에서는 신홍사 조실 무산, 해인사 방장 원각,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이 법계를 폄사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법계를 수여하며 "천년의 느티나무가 넓은 그늘을 드리우듯 대종사의 수행의 덕화를 사바에 널리 퍼라"고 설했다. 사진 왼쪽부터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신홍사 조실 오현 스님,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이 불자를 정대하는 모습. 손문철 대구지사장

"94년 개혁정신 다시금 되살리자"

조계종 4월 19일 '94년개혁불사 백서' 봉정식 거행

1994년 4월 10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는 2500여 스님들과 재가불자 등 1만여 명이 운집했다. 전국승려대회가 열린 것이었다. 종단 개혁에 대한 열기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됐고, 당시 기록권을 장악하던 스님들은 백기를 들었다. 22년이 지난 2016년 4월 19일, 근대불교의 마감과 현대불교가 시작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날 94년 조계종 개혁불사의 의미를 되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94년 개혁불사 22주년 기념법회 및 백서 봉정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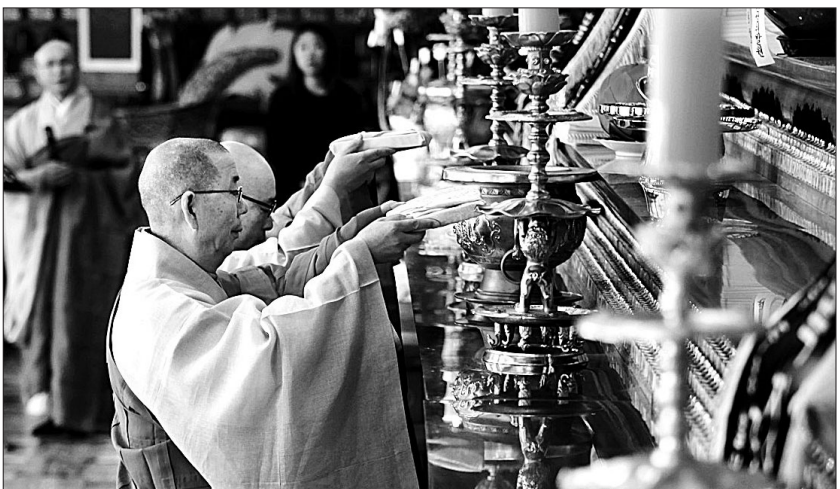
이날 봉정된 백서에는 2014년부터 2년 간 수집된 관련 자료와 종단개혁 관계자들의 녹취 등이 소장될 예정이다. 또 종단개혁의 전개과정 및 당시 개혁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대웅전에는 '94년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위원장 법등 스님을 비롯해 전 교무원장 청화 스님, 교육위원장 현응 스님, 포교위원장 지홍 스님 등 100여 스님이 참석했다. 봉정식은 백서 봉정과 함께 발원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94년 종단 개혁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대 전환점이었다. 이런 94년 개혁의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종단의 밝은 미래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홍 스님은 총무부장 지현 스님의 대독을 통해 "여전히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94년 개혁의 정신과 그 교훈을 되새기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모든 종도가 한마음으로 94년 개혁불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종단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법등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지현 스님이 백서를 봉정하고 있다.

"직선제 도입, 선거공영제로 단점 극복하자"

서울·경기·호남 대중공사서 직선제 선호 '뚜렷'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대중들의 여론이 직선제로 모아지고 있다.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 추진위는 4월 15일과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호남지역 대중공사와 서울경기지역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번 대중공사에서의 즉석투표에서는 '직선제'가 각각 57%와 39% 득표했으며, 연화미소법은 4.7%와 10.2%의 지지 밖에 받지 못했다.

이번 즉석투표에서는 앞선 대중공사와 달리 차기 선거제도에 대한 질문이 소폭 변경됐다. 종단쇄신위원회안에는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교구중회가 중심이 되는'이란 설명이 직선제에는 '직접투표에 참여하는' 설명이 추가됐다.

이런 변화 속에 종단쇄신위원회가 제안한 쇄신안도 호남 17.8%, 서울경기 40.7%의 지지를 받았다.

직선제에 대한 선호가 확인된 가운데 토론에서는 선거권 승합기준과 재가자 참여 여부 등을 두고 활발한 입장개진이 이뤄졌다. 특히 서울경기 대중공사에서 불자들은 총무원장 선거시 재가자의 참여를 강력히 주장했다.

서울경기지역 대중공사에는 조계종 2교구 용주사, 25교구 남양주 분말사와 함께 직할교구 소속 사찰 대중이 참여했다. 직할교구의 경우 주지인사고과제도 등 타 교구에 비해 비교적 행정시스템이 현대화된 곳이다. 또 서울 경기 지역은 재가불자 단체들이 대거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날 100여 참석대중 중 53%인 59명이 재가자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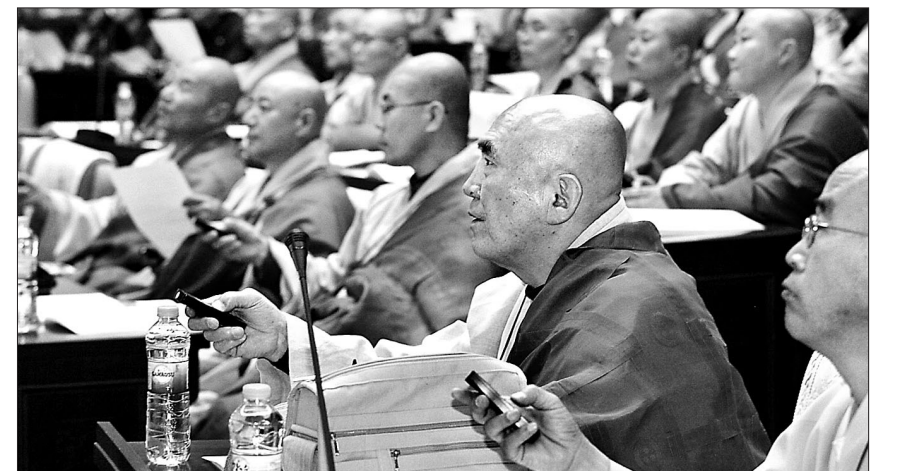
'직선제' 호남57%·경기 39% 지지

토론선 재가 참여·승합 기준 논의

'선거관리 재가단체 위탁' 제안도

교구중회의 선거인단 확대를 골자로 한 쇄신안에 찬성한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은 "교구중회 구성부터 재가자를 포함해야 한다. 권역별 신도회가 있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며 "이에 기반한 선거인단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제기됐다. 용주사 부주지 성법 스님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으로 내려가면



대중공사에 참여한 스님들이 리모콘으로 즉석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만나는 곳에 여비라도 줘야 하는 문화가 아직 있다. 이런 문화 개선 없이는 직선제가 오히려 상당한 비용이 든다. 그래서 추천제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학기 제2교구 신도회장은 "선거공영제와 사회의 선관위 위탁 등을 통해 그 과정에 투명성을 더할 수 있다"며 개선책을 제안했다. 조준우 수원사 신도회장도 "금품제공이나 수수때 강력한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 제도의 문제보다는 운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원장 주지 청진 스님은 "만약 재가자 참여가 힘들고, 승단만의 직선이 된다면 선관위 업무를 공신력 있는 재가단

체들이 연합하여 맡는 것이 어떤가 싶다"고 제안했다.

두 대중공사에서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종단이 대중공사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중공사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은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끊임 없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희망을 갖자"며 "한국불교 역사상 총무원장부터 대학생까지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는 없었다. 외면하지 않고 참여하는 모습이 한국불교를 바꾼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원한 안식의 길, 화두참선, 나를 바로보라

학산대원 대중사 조주록 강설안내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돌이켜서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생활을 영위해야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한 순간도 '나는 무엇인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행한다면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배처럼 살고, 바닷물처럼 수용하라.
대나무가 백백이 들어서 있는 숲에는
언제나 맑은 바람을 떨치고
시커멓게 썩은 파도 속에도 항상 밝은 달은 나타난다.

- 철벽(鐵壁)을 부수고 벽안(碧眼)을 열다 본문 중에서 -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대원 대중사
조주록 강설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6년 5월 21일 (토) 첫 법문(오후 8시, 2년이내)
■ 장 소 : 학림사 오등선원 설법전 ■ 문 의 : 042)825-1724

